

이 인생이든 저 인생이든, 선택했다면 맹렬히 살아야

“나는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효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면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나간다. 김상화에 나로서는 파격일 만큼 4년 남짓 꾸준히 나간 것도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보상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다.” <오두막 편지> ‘마른 나뭇단처럼 가버렸던 꿈’에 나오는 법정 스님 말씀이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 언덕이자 뿌리라고 하셨던 법정 스님이 남다른 애정을 보인 어머니 모임 김상회 회장이자 맑고 향기롭게 이사였던 법장공法藏宮, 강정옥 보살(77)과 인사동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향이 그윽한 대추차를 앞에 놓고 마주앉았다.

1993년, 파리 김상사 행화를 그린 재불화가 방해자 화백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경복궁 앞에 있는 법연사로 강정옥 이사를 불렀다. 자리에 함께 한 청학 스님은 파리 김상사 개원에 동참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파리 김상사를 후원하며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문화에서 불교문화를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파리 김상사를 도와 우리불교문화를 세계로 펼치는 부처님 일을 후원하시는 말씀에 선뜻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김상회 산파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께 김상회원을 위해 정기법회를 갖도록 말씀드렸다. 법정 스님은 “내가 어디 다니면서 법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한마디로 자르셨다. 그러나 유럽에 불교를 전하려는 마음들을 가혹히 여겨달라는 간곡한 청학 스님 부탁에 끝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는 분들한테 회비를 걷었는데 스님이 들어오시면서 ‘주머니 좀 털지 마라.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모임이 운영이 되려면 돈이 드는데 수입이 없으면 뭐가 되겠노.’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법정 스님은 김상사 법석에서도 보시함을 도둑놈 아가리로 알라고 막말(?)을 했던 어른이시니 어려하셨을까.



법정 스님은 “김상회 어머니들을 만나러 올 때는 목욕재계를 하고 옵니다”고 말씀했다. “당신은 온정성을 기울여서 모임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헛되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는 분들에게 그때그때 돈을 걷어 쓰곤 했는데, 흠어지면 그 뿐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강정옥 이사는 “기금을 만들어 일할 터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상사가 파리에서 개원이 되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미비했던 관계로 청학스님께서는 김상사 개원으로 인해 빛을 안고 계십니다. 김상사 후원회인 김상회로서 면목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설 처지는 아닙니다만, 김상회 임회비 겸 김상사 건립 시주금으로 회원 한 사람이 000만 원씩 내면 어떻까하는 생각입니다. 회원 여러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고 했다. 정회원은 정해진 금액을 내고, 그 밖에 분들도 형편껏 임회비를 내어 정회원, 준회원으로 정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강정옥 이사는 회장이 되었다. 그 돈으로 파리 김상사에 좌복(방석)도 만들어 보내고, 사월초파일에 등 값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는 물론, 파리 김상사에 머무는 스님 생활비를 보냈다. 그

러다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면서,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도 내고 김상사가 창건을 할 때도 십시일반 동참해 적지 않은 후원을 했다.

김상회 이전에도 법정 스님을 보았을까? “83년인

파리 김상사를 후원하는 일은

유럽에 한국문화를 펼치는 일

가? 송광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불일암을 올라갔어요.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고 절을 올리고 말씀을 나갔는데, 말씀 끝에 제가 영가천도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때 스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자, 싶었죠.” 스님은 시퍼런 반야경을 바로 들이대셨다. 김상사에 관심을 조성한 조각가 최종태 선생이 어느 날 법정 스님에게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님은 “불가에서는 그럴 때 독화살 이야기를

합니다”고 답을 했다. 최종태 선생은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다. 것처럼 스님은 귀가 열린 분에게 늘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을 건넸다.

“그 뒤에 법연사에서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글은 유려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글하고 달라서 확 갯어요. 사무리도 쉬고... ‘어쩌면 글하고 저래 다를까’ 싶었어요. 저는 글 쓰는 분들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들어키쳐보면 수필은 간결하고 짧으니 쉬이 읽히지만 법문은 법이 좀 갖춰있어야 알아들잖아요. 제가 법문을 들을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거지요.” 누구나 처음은 서툴다. 그 뒤로 스님은 대중을 향한 쉬운 법문 준비에 철저하셔서 김상사에서 하신 스님 법문엔 누구라도 금세 빨려들었다. 김상사가 개원한 뒤 스님 법문이 시처럼 수려할 즈음, 강정옥 이사가 스님께 여쭙었다.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하세요?” 이때도 스님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고 짧게 답을 했다.

“한참 뒤에 제가 인도를 다녀와서 스님께 ‘제가 이번에 인도를 열흘 넘게 여행을 하면서 살이 찌가지고 왔어요’ 하고 무심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아니, 그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에 가서 살이 찌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고생하는 분들은 생각이 안 하고 철없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괜히 싱거운 소리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출가자들에게 집 떠날 때보다 몸무

어머니들을 만나러 올 때

목욕재계를 하고 옵니다

게가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르던 단호한 어른이니 오죽했으랴.

“스님께선 쉬는 것이 싫어서 비빔밥을 잡숫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을 왜 섞어서 먹는지 모르겠다고.” ‘난 나이고 싶다’며 누구나 저마다 타고난 성품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 모습을 보더라도 스님은 단호한 분이셨어요. 질질 끄는 성격이 아니

서 끝낼 일은 단칼에 탁 끝내시더라고요. 김상회에서 법문을 하시고 난 뒤에도 활하고 가버리셔요. 김상회원 가운데 한 분이 법연사에서 나오는 회지에다가 ‘우리는 스님을 너무 흠모해 가지고 법문을 듣는 날을 눈 빠지게 기다려왔는데, 스님은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썩어버렸다’고 올린 글을 읽었는데 너무 공감했어요. 먼 산 쳐다보고 법문하고 나면 썩가져버리시거든...”

“맑고 향기롭게 첫 수련회는 비구니스님 강원이 있는 운문사에서 1박 2일을 했는데 장의 주교님이 오셔서 두 시간 동안 설법하셨어요. 또 강화도에서도 세미나를 한 적도 있어요. 유스호스텔에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이 ‘강화군 김상면’이었어요.” 우연치고는 놀랍다. 송광사 옛 이름도 김상사였는데, 파리 김상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김상사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도 은누리가 상서롭고 복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그 때 윤정광 선생님과 옛 매투들과 젊은 청년회원들이 1박 2일을 했어요. 거기서 저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지침을 쪽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주부이니까 물이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던졌던 길, 불자들이 증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

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 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등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 (10mm) 모주 1개 (12mm), 줄(실색), 코핀1개, 팬던트, 이수시개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수시개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앞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낸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염주 줄을 통과 시킨 후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팬던트와 마강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사이에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회 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지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실용산인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6

오염되지 않도록 부엌에서부터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주부가 보는 각도가 따로 있네.' 그러시면서 맛장구를 치셨어요. 마침 환경을 크게 더럽히지 않는 소재가 있었어요. 하얀 고체 주방세제인데 그 세제로 설거지를 하면 물도 오염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도 인체에 별로 해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공장에서 한꺼번에 사서 쓰게 되었어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고 계면활성제를 크게 줄인 주방세제를 이르는 말씀이다. 요즘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은 미생물 EM으로 설거지를 한다.

길상사가 생기고 나서 한해가 지난 1999년 정월, 강정옥 이사는 길상회가 길상사에 흡수된다는 편지를 회원들에게 띄우고 활동을 접는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는 회주 법정 스님께서 작 수 달 셋째 일요일에 정기법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따로 길상회 법회를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옛길을 따라 걸지만
길은 언제나 새 길이다**

기가 너무 송구스러워, 길상회는 새해부터 길상사 전체 신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길상회가 맡아 왔던 파리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 모임 후원은 앞으로 길상사가 이어갈 것입니다." 강이 바다가 되는 새 장을 여는 말씀이다.

"그 전까지는 길상회 살림 보고를 스님께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류시화 시인이 <산에는 꽃이 피네> 가제본을 제게 보여주면서 편집이 어때냐고 물어요. 선생님처럼 잘하는 분이 했으니 어렵시겠냐고 답을 했는데, 그 말씀 끝에 류시화 시인이 '스님이 법장공보살님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 스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스님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길상사에 가면 바로 법당으로 들어가고, 스님께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맑고 향기롭게 이사회 때도 회의 시간에 꼭 맞춰서 올라가곤 했어요." 조심조심, 어른을 모시는 사람은 늘 조심스럽다. 강정옥 이사는 스님에게 편지 한 장, 글씨 한 자 받은 적이 없다. 스님께 번거로움을 끼치는 일은 가려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인이라 가정사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딸만 다섯이나 낳았는데 첫 애가 한 돌 조금 지나고 먼저 갔어요. 그 때 인생무상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이 외동이에요. 외며느리가 딸만 졸졸이 낳고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이 미역국만 맛있다고 먹었으니 결에서 보기 참 딱했을 거예요. 우리는 관습에 따라 그냥 영결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관도 서 있지도 않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 갈등 때문에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는데도 딸만 낳아도 별 문제없이 넘어가고, 아이들이 시집을 가지 않아도 큰 흠이 되지 않으니 시대를 잘 만났다고 싶어요. 그런데다 불교를 믿고 보니까 애면글면 할 일이



시간을 떠받치는 기둥들, 시간을 담는 그릇, 법을 담는 그릇 모두 덩덤하다. 지워진 인연을 차분히 풀면 해탈. 선선이 받아들이고 선선이 내주며, 머무는 바 없이 머물고 흐르는 바 없이 흐른다.

없더라고요." 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살아온 여정을 그려내는 강정옥 이사, 선선하다. "큰 아이를 앞세웠으니 넷이 남았는데 막내만 시집을 가서 남매를 낳아 키우고, 위로 셋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사람들은 절에 가서 인연기도를 하면 배우자가 나타난다면서 열심히 빌러 다니는데,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 아무게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하며 빌 생각이 한 번도 나질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기가 개들이 시집을 가면 또 식솔이 딸리겠조. 그러면 인연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결혼을 해도 인생이고 하지 않아도 인생인데, 이 인생이든 저 인생이든, 살아볼만 하잖아요. 선택한 만큼 맹렬히 살면 되지. 틀에 얽매어 전전공공하면 나오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남들 눈치나 보면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지요.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어서어서 뛰어가지고 곁에 있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내 할 일 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맙지요. 지난날 철없을 때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어떤 일은 부끄럽고 후회가 들기도 해요. 그러나 철이 없어서 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때는 그 때고, 값지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 이 순간을 맹렬히 살아야지요." 법장공보살님, 진리를 품은 공필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카소가 남긴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내가 데생을 5분 만에 그려낸다고 하지, 그러나 내 손목이 5분 만에 데생을 완성하기까지, 60년이 넘도록 맹렬히 그렸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

우리는 옛길을 따라 걸지만 길은 늘 새 길이다. 만물은 저마다 길을 가면서 도는데 어루러진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행운유수

구름과 안개가 자주 대지를 감싼다. 떠가는 구름은 고정된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높은 봉우리를 만나면 감돌아 가고 평원을 만나면 온갖 자세를 드러내며 흘러간다.

문수봉과 보현봉을 안고도는 구름은 봉을 안았다가 봉 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물어버리기도 하는 묘용이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자연만의 오묘함이 아닐까 한다. 일순간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 구름에서 소멸의 이치를 배운다. 약지가 세 누군가가 체벌을 가하여 순치시켜 놓은 것도 아니련만 저리도 유유자적할 수 있던 말인가.

태양에 이르고자 하여 날개를 만들었다는 이카루스의 신화는 인류가 추구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구름은 날개도 없이 허공에 온갖 모양을 드러내어 인간의 가지가지 상념을 속속들이 파헤쳐 놓고 몽땅뿔 한 자루 없이 천대만상을 그려내고 있을까. 새삼스레 자연의 오묘함이 여기에 깃들여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저 작은 물방울 입자가 모여 안개를 이루고 있다. 안개의 여유를 생각해 본다. 무거운 빗방울이 그 질량을 지니고 있으려 하지 않고 대지에 그냥 부려 놓고 만다. 가벼워 건달만 하면 흘러흘러 어느 나뭇가지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구름과 안개에서 짐작이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마냥 흘러가고 안주함을 자유자재로 한다.

선수행자를 운수(雲水)라고 부른다. 운수란 행운유수(行雲流水)의 약자이다. 수행자는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다. 마치 떠도는 구름 같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수행자의 생활 상태를 잘 드러낸 말이다.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혹여 구름이 계곡의 물과 같이 졸졸 소리내며 계곡을 굽이쳐 흘러가고자 유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물 또한 낮은 곳에 있음을 자탄하며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의 영역을 넘겨보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여건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운형수제(雲兒水弟)라 했던가.

<식경록개연보살(息耕錄開筵普說)>에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번뇌를 피할 수 있다 해도 행운유수 추엽비화(墜葉飛花)를 어찌 멈추게 할 수 있으랴' 라고 읊고 있다. 행운유수와 추엽비화란 결국 허공을 떠도는 구름, 강을 흐르는 물, 나무에서 떨어지는 마른 잎, 초목에서 흘러내리는 꽃은 자연이다. 세상의 무상을 표현한 말이요 제행무상을 표현한 적절한 의미기도 하다.

행운유수와 유사한 말로 운유평기(雲遊萍寄)란 말이 있다. 구름이 광대한 허공을 떠가는 한 곳에 한 순간에도 머물지 않듯이 부류존는 흐

르는 물에 몸을 의지하여 표류한다는 말이다. 운유평기 또한 수행자는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경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비단 수행자가 아니라 해도 한 곳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걸어야 한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 신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이다. 이 단계를 넘어 속보경기에 나가고자 하는 선수의 걸기는 평범의 단계를 훨씬 넘어간다. 거기에 정교함이 따라야 하고 그러자면 일정한 시간을 내어 반복된 훈련을 해야만 한다. 그러한 사람은 걷기의 재미 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다. 느끼고 취하는 습성이다. 무감각한 눈은 추한 광경만을 눈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이 흘러 흘러 가는
구름과 안개의 여유
그것이... 수행자의 여여함**

겨 보고, 음악적 감각이 굵은 귀로는 소음만을 들을 것이다. 세잔느의 <목욕하는 사람들>이란 작품을 보고 터질 듯한 살결과 숨 쉬는 맥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베토벤의 제5번 <운명교향곡>에서 베토벤이 제1악장 첫머리의 동기에 대하여 자신이 '이와 같이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했듯이 그 운명의 선율은 나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닐까 반문할 때 이미 곡에 취하고 마는 것이다.

권세에 물들고 재물에 오염된 자들이여! 행운유수에서 여여함을 배우자.



since 1973

2012년 "불교달력출시" 임박!!!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

• 한국제지(주) 180~250 g/m² 스노우지
• 무림제지(주) 180~250 g/m² 아트지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탈로그가 필요한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협: 121068-56-042256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